

사랑의열매

ISSUE **152** 
2019 DECEMBER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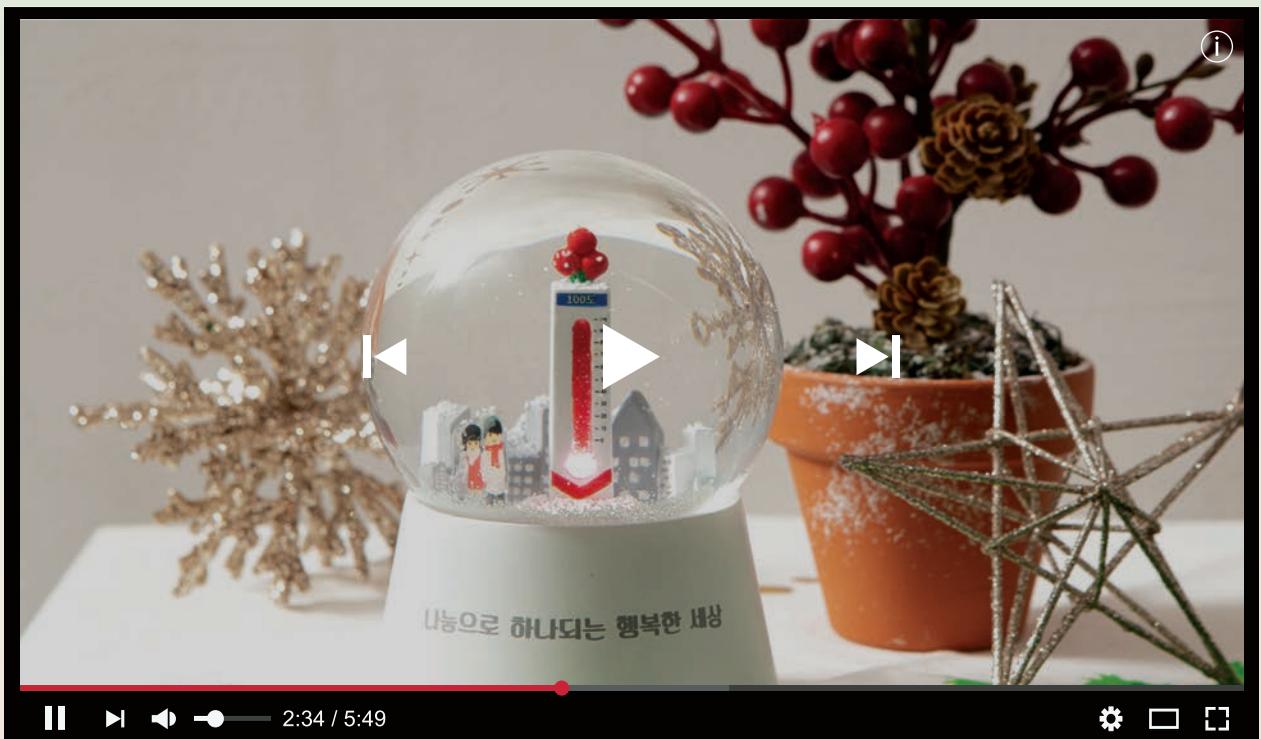
사랑가득 2019 희망가득 2020
올해도 사랑의열매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견 다온이와 2,000번째
착한가정 가입한
노라조 조빈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어느덧 2019년의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이웃을 돌아보자고 말하곤 합니다. 어찌면 너무 뻘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어려운 이웃은 겨울이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창한 것만이 나눔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작은 나눔이 더 소중한 때입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

📷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 페이스북 @chestkorea 📝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Og



♡ 🔍 📌 ... 🏷️

요즘 말이죠,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소년 소녀 가장
돕기 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가게에 들어가 후원을 받으려니
기분이 좀 그랬어요.
막 부담스럽고 막 좀 부끄럽고
근데 이상하게 추운 날 이걸 하고 나면
참 따뜻해져요.
이상하게 수업 시간에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그런데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해져요.

#사랑의열매 #후원활동 #대학생그램
#산타의기적 #칸타타 #빨간산타
#이제 #곧 #크리스마스 #인천
#로데오 #대학생활 #모험가 #도전
#열정에기름붓기



♡ 🔍 📌 ... 🏷️

#삼성나눔워킹 #사랑의열매



♡ 🔍 📌 ... 🏷️

맛있는 ~ 맛있는 참

#맛있는참 #맛있는참오리지널
#맛있는참따뜻한동행 #따뜻한동행
#따뜻한동행캠페인 #사랑의열매
#2019사랑의열매 #2019따뜻한동행



♡ 🔍 📌 ... 🏷️

이현지 버킷 리스트 중 하나 성공~!

#완주하기 #완주 #63빌딩 #63계단오르기
#친구들과함께여서 #가능 #버킷리스트
#제17한화생명63계단오르기 #사랑의열매
#개운 #뿌듯



♡ 🔍 📌 ... 🏷️

#사랑의열매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 어느덧
5개, 앞으로도 #사랑의나눔은 계속된다!
#기부는꾸준함 #기부는사랑입니다
#함께해요 #donation #badge
#communitychestofkorea
#donationislove

나눔
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04 사랑가득 2019 희망가득 2020

올해도 사랑의열매와 함께해주시서 감사합니다

PART 1 한뼘 더 가까워진 열매, 한 발짝 가까워진 나눔

PART 2 새로운 사회변화를 향한 열매의 꿈

PART 3 희망2020나눔캠페인 시작

PART 4 2019 모두 다 토론회



사랑의열매

vol. 152 2019 / 12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12월 / 통권 152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 이슈

연말 캠페인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난 김응수
“사랑은 마음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14 커버스토리

반려견 다온이와 2,000번째 착한가정 가입한
노라조 조빈

18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SK에너지 심필보 선임대리

22 힘내라 청춘

토닥토닥 토크 콘서트





24 현장 스케치 1

희망2020나눔캠페인 기자 간담회

25 현장 스케치 2

아너 소사이터티 열 번째 회원의 날

26 나눔 소식 1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신임 회장 취임

27 나눔 소식 2

W아너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봉사 활동

28 착한기업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변화 이끄는 LG생활건강

32 뽕큐 사랑의열매

프렌드아시아

36 나의 '첫'사랑

류제항 대전도시공사 참사랑회 前 회장

38 마음 책방

부정적 감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기초 마음 훈련

40 힐링 타임

함께 공연 보러 가지 않을까요?

44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5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아듀, 2019

올해도 사랑의열매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2019년도 끝자락에 닿았다.

올해도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위한 사랑의열매의 발걸음은

1년 내내 분주하면서도 수많은 기쁨과 보람을 남겼다.

특히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열매를 위한

대내외의 다양한 소통은 어느 해보다 활발했으며,

일상 속 기부를 촉진하는 다양한 모금 캠페인과 홍보 마케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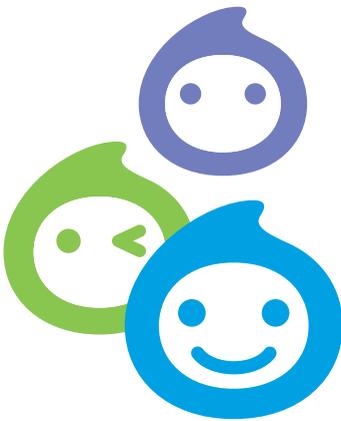
주목받았다. 숨 가뻐던 사랑의열매 2019년을 따라가본다.



PART
1

한 뼉 더 가까워진 열매, 한 발짝 가까워진 나눔

올해 사랑의열매는 일상 속에서 쉽고 친숙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기부자맞춤기금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기부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함께' 대한민국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왔다.



소중한 다수의 기부 '소다수 나눔캠페인'

지난 6월 13일 사랑의열매 회관 앞마당에서 '소다수 나눔캠페인' 론칭 콘서트를 열고 새롭게 출발했다. '소중한 다수의 기부'의 줄임말인 소다수는 청량한 소다수처럼 경쾌하게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소액 기부에 참여해 기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 착한가정뿐 아니라 ARS, 문자, 카드 등 일시 기부를 통해 소다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

중견·중소 기업이 참여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 '나눔명문기업'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중견·중소 기업을 위한 전문 기부 프로그램 '나눔명문기업'이 새롭게 탄생했다. 지난 9월 25일에는 전국 15개 기업이 나눔명문기업 1호로 공동 가입하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활성화

기부금 사용처를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정하는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은 가입자가 올해 7호까지 탄생했다. 지난 3월 탄생한 3호는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20억 원을 추가해 개인 초고액 기부를 기록했다. 4호는 글로벌 유통 기업 애타미, 5호는 전 삼성경제연구소 고(故) 최우석 부회장 자녀의 유산 기부, 6호는 애타미 이혜정 총단장, 7호는 (주)디쉬어 현승원 대표가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해 관련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PART 2

새로운 사회변화를 향한 열매의 꿈

사랑의열매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달렸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사랑의열매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혁신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①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② 나눔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나눔샘' ③ 사회성과 보상 사업(SIB) ④ 어려운 이웃의 재무 컨설팅 및 긴급 대출 지원 사업 '사랑의 금융119'가 지역 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다.

2019년 가장 큰 성과를 낸 사업을 꼽는다면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비영리 스타트업은 비영리 조직처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스타트업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와 효율적 방식으로 차별화한 사업을 전개한다. 사랑의열매는 현재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에 지원한 87개 팀 중 6개 팀을 선정했고, 앞으로 설립 초기 단계나 설립 전 아이디어 단계의 팀이 성장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9월에 열린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설명회 모습



'나눔과꿈'으로 올해도 행복합니다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2016년에 시작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 사업 '나눔과꿈'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국내 비영리단체라면 누구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 실행하기 어려운 비영리단체의 접수가 쇠도한다. 2019년 나눔과꿈 공모 사업에는 총 1,106개소가 접수했으며, 면접 심사 및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65개 기관을 선정했다. 2019년 나눔과꿈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을 사업 분야별로 보면 복지 분야가 20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 자립이 14개로 뒤를 이었다. 사업 대상별로는 장애인이 17개소,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각각 13개소로 같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1개 기획 사업

사랑의열매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11개 주제를 기획 및 전국 지역 사회 파트너 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기존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

던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기획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주제’(• 주거 약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주택 모델화 사업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적응 지원 사업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 사업 • 마을 단위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화 사업) ② 기존의 주요한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을 중심으로 기획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 지원을 위한 주제’(• 비구직 NEET 청년 지원 사업 •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 • 어려운 이웃의 임신·출산 지원을 통한 초기 양육 환경 조성 사업 •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사업) ③ ‘학대와 차별 개입 및 예방을 위한 주제’(• 재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 기능 강화 사업 • 학대 피해 장애인 회복 지원 사업 •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가 있다.

열매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1개 주제로 2019년부터 진행하는 전국 기획 사업은 157억 원 규모로 전국 158개소 기관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전국 기획 사업은 기존 지역(지회)에서 별도로 진행해온 방식을 공통된 주제를 발굴·기획하고, 지역(지회)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별 다양한 사업 중 주요한 주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 사업 의료보장 제도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보건과 복지의 분절로 인해 퇴원 후에도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병원 내 다학제 팀을 운영해 지역사회에서 의뢰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맞춤형 의료 자원을 연계하며, 지역-병원의 통합적 정보 교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통합사례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진·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의료비 부담감 해소를 통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6년 시범 사업 ‘보건의



료복지 301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모델을 정립해왔으며, 다른 제도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개입할 수 있는 심의 지원(중위 소득 80% 초과) 제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

비구직 NEET 청년 지원 사업 2016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희망플랜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기존 선행 사업이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과 청년을 모두 포함했다면, 가구 소득 기준을 없애고 만 19~34세 비구직 니트 청년에 초점을 맞춰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한다. 특히 니트 상태의 경우 학교나 노동시장 등 사회 체계에서 배제되어 고립될 수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멘토링, 코칭, 청년 중심 사회참여 활동 기획 등의 기회를 제공해 동기부여와 사회참여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청년 지원 정책 법안 및 조례 발의를 촉구하거나, 니트 상태로 고립된 청년 발굴 체계를 구축한 선행 사업의 경험을 통해 청년에 초점을 맞춰 가족과 지역사회 등 주변 체계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 회복 지원 사업 학대 피해 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물리적 학대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위기 지원부터 법률, 주거, 취업 지원 등 통합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자립 정착을 돕는 자립지원홈 운영 및 지역 내 학대 피해 장애인의 통합사례관리와 관련 법 제정 등 학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

사랑의 온도 100℃를 향한 73일간의 여정

희망2020 나눔캠페인 시작

지난 11월 20일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 ‘희망2020나눔캠페인’이 시작됐다. 전국에 빨간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되며 73일간의 나눔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알렸다.



‘희망2020나눔캠페인’(이하 나눔캠페인) 출범식이 열린 11월 20일은 갑자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캠페인의 상징 ‘사랑의 온도탑’ 제막 행사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다.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전개되는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이다.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출범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 복지행정실 강병호 실장을 비롯해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서울 사랑의열매 운영석 회장,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이연복 셰프와 방송인 현영 씨가 참석했다. ‘몸짱 경찰관 달력’을 제작·판매해 수익금 전

액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부천 오정경찰서 박성용 경사가 기부자대표로 참석했다. 예종석 회장은 “소중한 성금으로 매년 전국 3만여 곳의 복지시설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492만여 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을 위해 정성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랑의열매는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투명한 배분을 약속했다. 이어 출범식 참석자들이 구호에 맞춰 사랑의 온도탑 점등 버튼을 누르며 다 함께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축하했다. 2019년 캠페인에 이어 이번에도 모두의 정성이 모여 100℃로 펄펄 끓어오른 사랑의 온도탑을 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희망2020나눔캠페인 CHECK POINT

모금 목표액이 아니라 나눔 목표액 이전에는 종합적인 복지 수요에 기반한 모금 목표 총량을 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캠페인을 통해 달성하려는 나눔 목표와 이를 위한 성금 사용 계획을 미리 정하고 공개했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모금 목표액'이란 단어 대신 '나눔 목표액'이라 표현한다.

나눔 목표액은 4,257억 원 이번 캠페인의 나눔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8% 높은 4,257억 원이다. 목표액의 1%인 42억5,7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온도탑 온도가 1°C씩 올라 목표액 달성 시 100°C가 된다.

캠페인 1호 기부자 신한금융그룹 출범식이 열린 11월 20일 오전에 신한금융그룹이 120억 원을 기부하며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가 되었다.

나눔에 참여하는 방법 캠페인 기간 동안 • ARS 전화 기부(060-700-1212/3,000원) • 문자 기부(#9004/ 문자당 2,000원) •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 등으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 지상파 TV 3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금 생방송과 지하철·은행 등에 비치된 사랑의열매 모금함 등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사랑의온도탑 앞에는 현금 기부는 물론 카드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모금함이 설치되어 있어 쉽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기부 상담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080-890-1212)를 이용하면 된다.

등대를 본뜬 사랑의온도탑 이번 사랑의온도탑은 '어두운 곳에 가려진 이웃을 찾아내 빛을 비춘다'는 의미를 담아 등대를 본떠 만들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사랑의온도탑에서는 LED와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 나눔온도와 메시지가 송출된다. ♣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남다르게 시작한 사랑의열매

전국 17개 시도 지회별로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그중 눈에 띄는 출범식을 진행한 지회를 소개한다.



월동물품 꾸러미 만들기 행사를 함께 펼친 인천 사랑의열매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출범식과 함께 월동 물품 꾸러미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시민, 자원봉사자, 기부자 2,000여 명이 모여 강화쌀·라면·식용유·장감·털모자 등 겨울나기에 꼭 필요한 물품을 담은 꾸러미를 만들었다. 월동 물품 꾸러미는 인천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캠페인 첫 나눔명문기업이 탄생한 경남 사랑의열매 경남 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무학그룹 최재호 회장이 경남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전달하며 경남 2호이자 나눔캠페인 첫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잘 나누기 위해 모두의 목소리를 듣다

‘2019 모두 다 토론회’

지난 11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에서 ‘2019 모두 다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잘 모은 기부금을 내년에도 잘 나누기 위한 사랑의열매의 고민을 담아 새롭게 시도하는 행사다.

사랑의열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반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열린 토론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사업 전 과정을 함께하는 시민

‘모두 다 토론회(이하 토론회)’에 자발적으로 신청해 참가한 시민 200여 명과 시민참여위원들이 행사에 함께했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사랑의열매는 모금 기관이자 배분 기관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곳에 의미 있게 배분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취지를 전했다.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시민참여위원회 발족

식을 진행했다. 2011년부터 활동해온 시민감시위원회가 시민 참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많은 시민 앞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 사업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던 기존 역할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할 계획이다. 위촉장을 전달받은 시민참여위원회 박점식 위원장은 “감사에서 참여로 시민 역할을 확대하고, 사랑의열매와 협력해 ‘신뢰, 책임, 투명, 참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모두 다 토론회’를 통해 시민에게 새로운 배분을 위한 희망나눔 제안을 전달받았다.





잘 나누기 위해 모두 다~ 모였다

정부의 복지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의열매는 토론회를 열어 시민이 직접 배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해지는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점검하고자 했다.

토론회는 '사회 안전망·돌봄 시스템·교육 자립·사회 문제'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주제별로 원탁에 둘러앉은 시민들은 그동안 혜택에서 소외된 이웃을 꺼낼 수 있는 새로운 배분 방법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시민들 모습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모인 만큼 각자의 경험과 관심에서 우러나온 참신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형성고 고독사에 대응하는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까지 다양한 배분 아이디어가 모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우리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적힌 빨간 공을 배분 온도탑에 쌓아나갔다. 더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배분 온도를 100℃까지 끌어올렸다. 온도탑을 전달받은 김연순 사무총장은 "모금온도탑은 여러 번 세워봤지만 배분온도탑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나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까지 국민 성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토론회에서 전달받은 희망나눔 제안은 2020년 배분 사업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두가 함께 만든 희망나눔 제안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

모두 다 토론회 참가자 MINI INTERVIEW



조형준 사회복지사 "제가 직접 배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참가했어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공부 가 된 것 같아요. 도움이 절실한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웃사랑 실천 의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황수민 학생 "사실 배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동안 모금에는 동참했지만, 모금 이후엔 어떤 과정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늘 의미 있는 배분을 위해 많은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어요."

1 진지하게 토론 중인 시민의 모습 2 시민들이 제안한 배분 아이디어를 뜨거워진 배분온도탑 3 토론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리 중인 참여자들

사랑의열매 연말 캠페인 광고 촬영 현장

대세 배우 김응수
사랑은 마음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세 배우 김응수가
사랑의열매와 함께했다.
술하게 쏟아지는 광고 러브콜에도
망설임 없이 사랑의열매 연말
캠페인 광고를 선택해 재능 기부한 것.
“나눔은 돈이 아닌 마음의 크기”라고
말하는 김응수를 촬영 현장에서 만났다.



2019년 10월 28일, 경기도 용인의 한 가구점에 설치한 세트장은 새벽부터 분주했다. 사랑의열매 연말 캠페인 광고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촬영장 주변은 촬영 관계자와 스태프 그리고 사랑의열매 직원들과 출연자들 차량으로 가득 찼다. 한쪽에는 밥차까지 준비돼 있어 영화 촬영 현장을 방불케 했다. 아직 가을이었지만 촬영장은 제법 쌀쌀했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배우 김응수가 있었다.

가치 있는 일이 우선이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묻고 더블로 가”, “나도 순정은 있다”,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2006년 개봉한 영화 <타짜>에서 김응수가 열연한 ‘곽철용’의 명대사들이다.

요즘 가장 바쁜 배우 중 한 명이 김응수다. 그가 연기한 곽철용이란 캐릭터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100통이 넘는 관계자의 전화와 10건이 넘는 광고 출연 제의가 쏟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김응수가 선택한 것은 재능 기부를 통한 사랑의열매 연말 캠페인 광고였다.

“사랑의열매 연말 캠페인 광고 제안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NG 한 번 없었던 김응수의 촬영 모습



광고 촬영 현장을 찾은 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 중인 김응수

가치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가치가 있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김응수의 말에 힘이 실려 있었다.

기부는 돈이 아닌 마음의 크기

김응수의 나눔에 대한 철학은 오래전부터 유명하다. 자신의 집에 수영장을 만들어 무료로 개방할 정도로 마음씨가 넉넉한 그가. 그런 그가 촬영 현장에서 “묻고 더블로 가!”, “올해부터 2,000원으로 가!” 등 유행어를 패러디한 대사를 맞갈 나게 쳐냈다. 촬영 현장에서선 어떻게 NG 한 번 없느냐며 모두 놀라워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연말 캠페인 광고가 연말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개인 기부가 보다 활성화되어 나눔문화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카피처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니까요. 자, 올해부터 묻고 더블 2,000원으로 가자고요.(웃음)”

김응수는 “금액이 중요하냐 짜샤! 올해부터 2,000원으로 가!”라는 연말 캠페인 광고 대사를 빗대어 말했다. 다양한 개인 기부로 세상을 바꾸어나가자고 권하기에 김응수만 한 모델이 또 있을까. 나눔 세상에 최적화된 친근하고 따뜻한 배우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랑의열매 연말 캠페인 광고의 주인공 김응수를 다시 한번 보러 가자. 묻고 더블로! ❀



반려견 다운이와 2,000번째 착한가정에 가입한 '노라조' 조빈

“저와 다운이, 나눔으로 더 행복한 가족 될게요”

남성 2인조 음악 그룹 '노라조'의 리더 조빈이 '착한가정'의 2,000번째 회원이 됐다.

자신의 반려견 '다운'이와 함께 가입해 큰 화제를 모은 조빈은 사랑의열매 회보 표지 모델로도 나섰다.

12월을 환하게 밝혀준 가수 조빈을 만났다.

대한민국을 신바람과 흥으로 들썩이게 만들 줄 아는 남자, 가수 조빈이 사랑의열매와 함께 했다. <사랑의열매> 12월호 표지 모델로 재능 기부에 나선 것! 이에 앞서 조빈은 2019년 10월 4일 자신의 반려견 '다운이와 함께 사랑의열매 가족 단위 정기 기부 프로그램 '착한가정'에 가입하기도 했다.

2,000번째 착한가정이자 반려동물과 함께한 착한가정 1호라는 명예로운 타이틀도 갖게 됐으니 조빈이로서는 더욱 뜻깊지 않았을까.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은 기분

익살스러운 포즈를 천연덕스럽게 소화해내며 촬영장 분위기를 주도하던 조빈은 반려견 다운이와 착한가정에 가입한 소감을 묻는 질문엔 자못 진지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답했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다운이와 착한가정에 가입하려고 하니, 제가 정말 반려견 다운이와 착하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다운이는 언제나 제게 가족이었지만, 착한가정에 함께 가입하니 뭐랄

까... 주민등록등본에 올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색달랐어요. 2,000번째 착한가정이라는 사실도 좋았는데, 반려견과 가입한 가정 1호란 타이틀은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조빈은 반려견과 함께 선행을 하는 최초의 모델이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했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이 동물 가족과 함께 착한가정에 가입해 2호, 3호 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말이다.

더없이 사랑한다고 자부한 다운이와도 착한가정에 가입한 후 더욱 돈독해졌다고, 반려동물과 함께 선행을 하면 보다 애정이 깊어진다고 따뜻한 경험담도 귀띔해줬다.

힘든 시간에 버팀목 돼준 다운이

조빈에게 다운이는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존재다. 10년을 동고동락한 멤버를 떠나 보내고, 새로운 멤버를 만나기까지 2년여의 공백기를 함께해주었기 때문이다.

“다운이는 지인이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하게

“
반려견과 함께 가입한 착한가정 1호라는 타이틀이 무엇보다 영광스럽습니다. 저희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가족과 착한가정에 많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

“

노라조는 힘든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드리고 싶은 팀이에요. 사랑의열매와 비슷하지 않나요?

”

1 2019년 10월 4일, 가입식 후 김연순 사무총장과 기념 촬영 중인 조빈과 다운이
2 조빈은 더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했다.

돼 제가 데려온 아이예요. 같이 산 지 5년 정도 되었죠. 그때가 함께 활동하던 멤버 혁이(이혁)를 독립시키고 혼자 지내던 때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고, 좀 공허했어요. 그런데 다운이 먹이도 챙겨 먹이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해질 때면 다운이와 둘이 어떻게든 재미있게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다운이는 조빈에게 힐링을 주는 대상이었다. 표지 촬영 현장에서 만난 다운이는 멋진 강아지였다. 주인인 조빈을 따라 카메라에 시선을 잘 맞춰 촬영도 순조로웠다. 늘 얌전한 다운이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한다. 다운이를 예뻐하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은 이웃이 있을 정도라고.

“사랑의열매는 TV에서 많이 접했어요. 처음엔 기관들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기부만 하는 곳인 줄 알았죠. 그런데 반려견 다운이와 함께 기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봤더니 개인



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늦었지만 착한가정으로 시작한 사랑의열매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음악 하고파

그룹 노라조는 파격적 의상과 독특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 그 중심에 조빈이 있다.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특이한 의상을 선보이면서도 조빈은 특이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사이다병을 달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저게 뭐야!’ 하며 웃으시고, 아이들은 ‘와, 신기하다’ 하며 따라해보고 싶어 하죠. 전 연영이 저희를 보면 할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전 너무 행복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는 재밌



는 음악을 계속 만들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노라조는 재미있는 일도 없고 사는 게 힘든 분에게 흥이 나게 하고, 에너지를 드려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목표인 팀입니다. 사랑의열매가 하는 일과 비슷하지 않나요?(웃음) 15년 정도 활동했는데도 낯을 가리고 소심한 저는 여전히 무대에 오르려면 떨리고 두려워요.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똑같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조빈은 착한가정에 가입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으로 인정받은 것 같이라며 도리어 고마움을 전했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일 거예요!

착한가정 가입과 함께 회보 표지 모델로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조빈은 앞으로 더 많은 나눔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사랑의열매를 만나면 누군가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 이란다.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고, 이렇게 세상에 이름을 알린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늘 생각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일 거라고요. 점점 더 좋아질 거란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도 분명 더 좋은 날일 거예요!”

조빈은 그냥 하는 예쁜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더 좋은 내일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믿음마저 없다면 너무 힘들 것 같으면서 말이다. 이어 많은 사람이 자신을



3

보며 기부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란 걸 느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제가 착한가정에 가입도 하고, 기부나 나눔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니 조빈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착한가정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부 문의도 마구 늘었으면 좋겠어요.” 기부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금액은 크게 개의치 말라는 조빈도 덧붙였다.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 스스로가 커지는 기쁨까지 맛볼 수 있다는 귀뜸도 잊지 않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착한가정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까지 말하는 그가 참 따뜻했다. ❀

3 표지 촬영 현장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 조빈과 다운이

직장에 다니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한

SK에너지 심필보 선임대리

“우분투! 같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엔 언제나 심필보 선임대리가 있다. 도울 수 있다면 외면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늘 그래 왔다.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도리어 반문한다.
나 혼자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다 같이 잘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오랜 꿈이던 아너 가입

SK에너지 울산CLX 3공장에 재직 중인 심필보 선임대리는 명함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지만 울산에서 가장 유명해진 직장인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개인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직장인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심 선임대리는 1,000번째 회원을 욕심냈다며 웃고 만다.

“기부에 관심이 많아 아너 소사이어티에 대해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지만 저는 90세까지 산다고 보고 절반인 45세를 전환점으로 삼아 남은 도우며 살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실행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너 소사이어티는 전국 1,000번째 회원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웃음)”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심 선임대리의 오랜 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기도 바빠 어느 날 보니 1,000번째 회원이라는 욕심내던 타이틀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게 웬일! 그보다 더 명예로운 타이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직장인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수식어 말이다. 직장인이 고액을 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의 반대는 없었을까?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나요.
우분투!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뜻하는
이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가입했어요. 그때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화해 가입하고 싶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웃음) 왜 아니겠어요. 갑자기 전화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겠다고 했으니... 사랑의열매로부터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받고 가족에게 이야기하니 오랫동안 마음먹은 일이니 하라고 흔쾌히 응원해주더라고요.”

심 선임대리는 아내와 두 딸을 두고 있다.

가난하던 유년 시절의 다짐

그가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일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 심필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사랑의열매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고, 수재 의연금부터 세월호 유가족 돕기, 청년희망펀드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비정기적으로 기부해 왔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이전에 기부한 내역을 돌아보니 무려 7,000만 원이 넘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다. 여유가 있어 한 일은 아닐 것이다. 왜 그다지 열심히 기부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심 선임대리는 가난하던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을 꺼냈다. “가난해서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 어머니가 장에 가서야 한다며 짐을 들어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인 줄도 모르고 짐 들고 따라갔다가, 친구들이 역에서 모여 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역 앞에 모여 있는 친구들을 본 순간, 심 선임대리는 어린 마음에 큰 광주리를 들고 있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다. 알 수 없는 슬픔과 서러움에 휩싸여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울었다.

모교에 장학금 전달로 약속 지켜

“그때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떼를 썼으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웃음) 하지만 당시엔 부모님 말씀이라

면 다 따랐죠. 상처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장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짐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꼭 나 같은 어린이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요.”

심 선임대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천사냐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이후 직장 동료들이 그를 두고 ‘기부 천사라고 해 쑥스럽다는 말도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다. 그 어린 나이에 아픈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다짐을 했을까. 그의 다짐은 과거 어느 날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아픈 기억을 남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다.

“전환점으로 삼은 마흔다섯 살 때 3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들고 모교로 가는데… 마음이 참 먹먹하

더군요. 그러면서도 불안했어요. 액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가늠도 되지 않고, 어디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몰라서 무작정 찾아갔거든요.”

심 선임대리는 감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있는 듯하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할 때도 무작정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화를 걸었는데,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할 때도 무작정 찾아갔으니 말이다. 학교에서는 깜짝 놀랐다. 개교 이래 졸업생이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분투라는 말을 아세요?

심 선임대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모교에 장학금(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후 지정 기탁으로)을 전달하고 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었지만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과 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려웠던 시절의 내가 여전히 거기 또 있지 않겠느냐면서 말이다. 몽클해지는 답이다. 지독하게 가난하던 유년 시절, 어렵게 취직은 했지만 단칸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던 신혼 시절 등 고생도 많이 했다. 아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4개월 된 딸을 업고 보험설계사로 나섰을 정도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고생한 자신들에게 보상하고 싶은 맘도 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때 심 선임대리는 우분투(Ubuntu)라는 말을 아느냐고 물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앞으로 나눔 계획요?
사람에겐 평생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죠. 저는 결혼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두 번의 기회를 잡았고, 세 번째 기회는 무엇일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나무 위에 딸기 한 바구니를 올려놓고 이 부족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에게 딸기를 전부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달리더라고요. 1등에게 줄 건데 왜 손을 잡고 달리느냐고 했더니 우분투, 우분투 하고 외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 중 하나가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는 거죠?” 하고 묻더라고요. 우분투라는 말은 넬슨 만델라가 연설에서 자주 쓰던 단어도 유명하다. 심필보 선임대리의 나눔 철학이 잘 드러나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생에 주어지는 세 번의 기회 중 결혼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으로 두 번을 썼다는 심 선임대리는 남은 마지막 하나가 무엇일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어쩐지 같이 기다려지는 답이다. ♡



청춘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토닥토닥 토크 콘서트

지난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JCC아트센터에서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토닥토닥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사랑의열매가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3명의 연사가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훈훈했던 콘서트 현장을 소개한다.

일상에서 마주한 특별한 시간

쌀쌀한 바람이 불던 10월의 마지막 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청춘을 토닥여줄 ‘토닥토닥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힘든 일상에 지친 청년들이 자신은 존재 자체로 빛나는 별임을 잊지 않길 바라는 사랑의열매의 마음을 담았다.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사회를 맡았고, 밝은 에너지와 거침없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개그우먼 박지선과 꾸밈없는 매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정신혜가 연사로 참여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앳된 얼굴의 10대 청소년부터 퇴근 후 달려온 듯 보이는 직장인까지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공연장은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발걸음한 관객으로 북적거렸다. 열매특독 대학생 서포터즈는 콘서트를 위해 제작한 엽서와 응원 수건을 나눠주며 밝은 웃음으로 관객을 맞이했다. 기념품을 받은 관객들은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공연장에는 소액 기부를 위한 모금함도 준비돼 있었다. 위로받으려 온 청년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오후 7시, 공연장의 불이 꺼지자 사회자 박수홍이 무대에 올랐고 콘서트가 시작됐다.

열매특독 대학생 서포터즈는 밝은 미소로 공연장 안내와 소액 기부 참여를 도왔다.



청춘, 나를 찾아가는 과정

고등학생 때 참가한 오디션이 자신을 배우의 길로 인도했다는 정신혜가 첫 번째 연사로 나섰다. 정신혜는 자신이 오디션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배우는 꿈으로만 남았을 거라며, 청춘들에게도 간직한 꿈이 있다면 용기 내 도전하라고 응원을 보냈다.

“배우가 된 지금도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럴 때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혜의 진솔한 말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2030 세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뒤이어 밝은 미소와 함께 등장한 박지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행복한 날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약속을 지키려는 듯 시작부터 센스 넘치는 입담으로 쉴 새 없이 웃음 폭탄을 터뜨려 객석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지선은 최근 연예인들의 팬미팅 사회자로 주가를 올리며, 13년 차 개그우먼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고 근황을 알렸다.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즐겼을 뿐인데,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기회는 어디서 올지 몰라요. 안 되는 일 곱씹으며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뭐 있나요? 해야 할 일은 하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배우 정신혜의 응원에 박수로 화답하는 관객들



청년들의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하는 사회자 박수진



연사들이 재치 있는 입담으로 관객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좋아하고 행복한 일에 집중할 것

1부에서는 박지선과 정신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2부에서는 청년들이 묻고 연사들이 답하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오가던 중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춘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질문이 화두로 떠올랐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견뎌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자, 연사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곧 마이크를 들었다. 정신혜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며 불안감을 없앤다”고 말하자, 박지선은 “나 역시 언제나 현재에 충실하면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데 감사하려고 한다”며 답을 이어갔다. 무대에 선 연사들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청년들을 응원하고, 무대 밖 관객들은 때론 큰 소리로 웃고, 때론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였다

콘서트 제목이 마음에 들어 참여했다는 김지은 양은 “고3이라 걱정이 많고 늘 불안했는데, 큰 응원을 받아 마음이 든든하고,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겠다”며 기뻐했다. 직장인 조혜인 씨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삶에 대해 생각할 시간에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라는 박지선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토탈토탈 토크 콘서트’는 따뜻한 말로 지친 마음을 토탈토탈 다독여주는 훈기가 가득했다.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이 된 이 소중한 시간은 공연장을 찾은 모든 이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듯하다. ❀

달라진 연말 나눔캠페인에 관심 집중

희망2020나눔캠페인 기자 간담회



사랑의열매는 지난 11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희망2020나눔캠페인'(이하 나눔캠페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일에 열린 출범식에 앞서 언론에 예년과 달라진 나눔캠페인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월요일 분주한 일정에도 다양한 매체의 기자들이 참석해 달라진 캠페인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랑의열매는 1998년 창립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총 21차례에 걸쳐 연말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을 기획해 국민적 모금 운동을 전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캠페인이 시작됐지만 이번 캠페인부터 가치와 지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모금 목표액을 나눔 목표액으로 새롭게 명명함과 동시에 모금액의 배분 방향을 담은 4대 나눔 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민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것이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달 1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올해 나눔캠페인의 면모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 분야를 취재하는 신문-방송-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 상황을 이룬 가운데 사랑의열매에서는 김연순 사무총장을 비롯해 최은숙 전략기획본부장, 강주현 사회공헌본부장, 김누리 마케팅본부장, 정희영 나눔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나눔캠페인을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이 주목한 부분은 단연 나눔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이전까지는 종합적인 복지 수요에 기반한 모금 목표 총량만 설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캠페인을 통해 달성하려는 나눔 목표와 이를 위한 성공 사용 계획을 미리 설정해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랑의열매는 이번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이 4대 나눔 목표, 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 돌봄 네트워크 강화 ③ 빈곤의 대물림 완

화 ④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했다.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은 “기부자들은 얼마가 모이는지보다 기부금을 어디에 쓰는지, 또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를 더 궁금해하기 때문에 모금액의 배분 방향을 미리 설정해 알려드리게 됐다”며 “절박한 위기에 몰린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돕는 일부터 새로운 사회문제를 주목하고 대응하는 것까지 기부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회원 2,165명의 선한 실천으로 일군 변화



아너 소사이어티 열 번째 회원의 날

지난 11월 12일 그랜드 워커히 서울 비스타홀에서 '2019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이하 아너 회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열 번째 만남, 행복한 변화'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 많은 회원과 가족 4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개인 고액 기부 문화를 이끄는 아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너 회원의 날을 자축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아너 소사이어티 최신원 총대표(SK네트웍스 회장), 아너 회원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방승인 현영·건미리, 누적 기부금 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 기부자이자 1호·3호 기부자맞춤기금에 가입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 등 많은 아너가 함께했다.

아너 회원의 날은 단순히 화합과 친목을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아너 성금을 통해 다양한 배분 사업이 진행되는 등 나눔으로 변화된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기부 문화를 선도하는 아너의 선한 영향력과 위상을 살펴봄에 아너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다.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한 분 한 분의 의지와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 개인 고액 기부라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전파했고, 개인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감사를 전했다. 활발한 활동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지역 클럽에 올해의 아너 대상을 수여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는 ●충남지역 패밀리 아너이자 지회 아너 클럽 대표로 활동한 성우중(주)도원이엔씨 대표이사 ●착한가게, 착한일터를 거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박선남 차스민 대표 ●제주지역 첫 패밀리 아너 김진욱 돈마유통 대표다. 지역 클럽 부문은 ●올해 1월 11명이 동시에 아너 회원으로 가입하

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부산클럽과 ●자조 모임인 '아너스클럽'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 활동과 지역 간 화합으로 아너 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대구클럽이 수상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12월에 출범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으며, 회원 수 2,165명, 누적 기부액 2,404억 원(11월 12일 기준)을 달성하며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12년 동안 아너 회원들은 우리 사회에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너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 행복한 변화가 가득 하길 바란다. ❀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신임 회장 취임

지난 10월 17일 전남 사랑의열매 제10대 회장에 노동일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

노동일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전남 사랑의열매를 이끌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게 된다.

지난 10월 17일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2층에서 허정 전임 회장과 노동일 신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9·10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랑의열매 전임 회장, 위원,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기관 단체장,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전남 사랑의열매의 출발을 축하했다.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노동일 회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인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에 사회복지 부문 곡성군민의 상, 2006년에는 국세청장 표창, 2008년에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표창, 2011년에는 외환은행나눔재단 행복도움 표창, 대한민국 나눔 실천 유공자로서 2011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 2012년도에는 그동안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 사회 봉사과 기



부 활동,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전남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전남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전남 아너 대표로 활동하는 등 사랑의열매와도 인연이 깊다.

노동일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 사랑의열매를 이끌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허정 회장님께서 이끌어오신 나눔문화를 더욱 활성화해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노동일 회장은 임기 기간인 3년 동안 전남 사랑의열매를 이끌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 민간 복지 기금을 전달하는 희망의 가교 역할을 맡아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다. ❀



10월 17일에 열린 전남 사랑의열매 제9·10대 회장 이·취임식(첫째 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노동일 신임 회장, 일곱 번째 허정 전임 회장)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 앞마당에서 진행된 김장 김치 나눔 봉사 활동

올해 김장은 우리가 책임진다!

W아너와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봉사 활동

코끝에 찬바람이 스칠 즈음이면 안부처럼 “김장하셨어요?” 묻는다. 한국 사람이라면 빼먹지 않는 연례행사이지만, 준비하는 일도, 담그는 일도 만만치 않다. 특히 어려운 이웃은 부담감이 더하다. 그들에게 맛있는 김장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W아너 소사이어티(이하 W아너) 회원들이 또 한 번 뭉쳤다.

지난 10월 31일에 서울 중구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 앞마당에 W아너 김장 김치 나눔 봉사 활동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W아너 이민재 총리더, W아너 중앙회 송경애 리더를 비롯해 전국 23명의 지역 리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미혼모 시설 등에 전달한 W아너들

더와 회원,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장 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바쁘게 움직였을 W아너들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이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위생을 위해 앞치마와 장갑·마스크로 무장하면서도 곳곳에서는 내내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였다. 두 줄로 길게 늘어선 W아너들 사이에 절인 배추와 김치소가 수북이 쌓였다. 정성스럽게 배춧잎 하나하나에 김치소를 넣으며 맛있게 김치를 담그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W아너들은 김장 김치 10kg 432개 박스를 포함해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지정 기탁금 2,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그들의 손끝에서 맛있게 탄생한 김장 김치는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를 통해 미혼모 가정과 여성 단체 및 시설에 전달했다. W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아닌 소사이어티 중 여성 회원의 모임이다. 기업인·전문직·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회원 433명이 가입했다. W아너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W행복기금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W아너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



사랑의열매 김연순 사무총장,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이석철 부장, W아너 총리더 이민재 (주)엔스 대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변화 이끄는 LG생활건강

“사랑을 나눌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LG생활건강은 국내 최고의 생활 문화 기업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교육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회사 비전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LG생활건강은 국내 최초로 치약과 화장품을 생산하며 70년 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온 기업이다. ‘고객의 삶을 아름답고(beautiful), 건강하고(healthy), 활기차게(refreshing) 만들자’는 사업 방향에 맞춰 사회 공헌의 포커스를 주 고객인 여성과 청소년에 맞추고 있다. 사랑의 열매는 LG생활건강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효과를 배가하는데 중점에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다

양한 사업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계획이다.

기부라 쓰고, 관심과 사랑이라 읽는다

LG생활건강의 기부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한다. 사랑의열매와 함께 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생활용품 점자 스티커 제작 및 배포’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국 3만여 명의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생활용품 점자 스티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랑의열매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1 생필품을 담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로 이웃과 만나는 LG생활건강 직원들
 2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함과 점자 스티커 보급 공익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3 삼푸, 린스, 치약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을 표시하는 점자를 스티커로 제작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줄였다. 4 사랑의열매에 행복가득9호 선물세트 5,000개를 기부했다.



이 LG생활건강에 제안하며 시작된 공익사업이다. 삼푸와 린스, 세안, 로션, 스킨, 보디, 치약, 클렌저의 여덟 가지 점자 스티커를 개발하고 다양한 제품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생활용품은 개인 공간에서 필요한 생필품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LG생활건강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점자 스티커 제작과 지원에 나섰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이병돈 대표는 “시각장애인은 삼푸와 린스처럼 용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활 용품을 타인의 도움 없이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며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제조사에서 이런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점자 스티커 하나로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불을 밝힌 것이다. LG생활건강의 이웃사랑은 어려운 시기에도 빛을 발한다. 지난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를 자처하며 천안시에 행복가득9호 선물세트 5,000개(6,0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선물세트는 사랑의열매 천안시 나눔봉사단이 충남 사랑의열매와 연계해 천안시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했

다. 매년 설 연휴에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대표적 나눔 행사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를 진행한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2004년 900여 개 보따리를 준비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만나면서 시작한 활동이다. 2018년에도 22가지 생필품과 이불을 포함한 총 11만여 개의 물품 보따리를 전국 5,629가구의 조손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그리고 올봄, 국가재난 사태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원의 성금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2002년 12월부터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시작한 LG생활건강은 현재까지 572억3,000여 만원(2019년 11월 기준)의 누적 기부 액수를 기록하며 이웃사랑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준높은 구강 교육 어린이 건강뮤지컬

LG생활건강은 2004년부터 20만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페리오 키즈스쿨’ 교육을 진행해왔다. 페리오 키즈스쿨은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양치

'빌려 쓰는 지구스쿨'은 누구나 할 줄 알지만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일상 습관을 친환경 습관으로 개선하는 국내 최초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질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구강 보건 교육이다. 2017년부터는 이를 개편해 올바른 양치 습관을 전파하는 어린이 건강 뮤지컬 <반짝반짝 페리오>를 진행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이 후원하는 <반짝반짝 페리오>는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고 재단법인 어린이공연문화재단 행복한아이가 주관하는 교육 문화 사업이다. 5~10세 어린이에게 이 닦기, 손 씻기 등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을 춤과 노래에 접목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뮤지컬이다. 이는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어린이 건강 뮤지컬로 양치질을 싫어하는 주인공 '뽀이'가 중국과 프랑스, 멕시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마을 축제를 돌아다니며 이색적인 음식과 양치 문화를 접하고, 치약 요정을 만나 올바른 양치 습관을 들인다는 내용이다.

뮤지컬을 통해 올바른 양치 횟수, 양치 시간, 양치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 주요 도시의 유아교육기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에도 충남·전남 등 전국의 2,700여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22만4,000

여 명의 어린이가 구강 보건 교육(페리오 키즈스쿨)을 받거나 뮤지컬 공연(<반짝반짝 페리오>)을 관람했다. 뮤지컬 하나로 어린이 구강 위생 교육에 큰 획을 그은 것이다.

너와 나의 내일을 지키는 청소년 습관 교육

청소년 대상 사회 공헌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빌려 쓰는 지구스쿨'은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국내 최초의 융합형 습관 교육이다.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배운 적 없는 세안, 양치, 설거지, 세탁, 분리배출, 진로 교육 등을 교과목으로 설계해 중학교 정규 수업 과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을 대신하며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강명희 교수팀이 프로그램 설계와 감수를 진행하고, 환경 단체 에코맘코리아와 협업체 물 절약, 제품의 적정량 사용 등을 강조하는 환경 기반의 융합형 습관 교육을 맡고 있다.

LG생활건강 임직원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 과목별 담당 교사

로 직접 참여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실제로 임직원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진로와 연계하도록 기업 직무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소통에 적극 참여해 임직원 프로보노(각 분야 전문가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대학생 기자단, 어머니 서포터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매년 100여 개 학교가 대기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 진출 위한 징검다리 되다

LG생활건강의 자연주의 브랜드 더페이스샵은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준비생 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뷰티 인플루언서를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여성에게 뷰티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지난해 처음 시작한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는 35명을 모집하는데 500여 명이 몰려 14: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

로 20~30대 여성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아기 낳은 지 20일 된 초보 엄마, 고용 절벽에 좌절된 취업 준비생, 유튜브로 재기를 모색 중인 전업주부 등 다양한 사연이 있는 여성이 대거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6개월간 전문가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는다. 교육 이수생에게는 현직 크리에이터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LG생활건강 제품과 활동 지원금도 지급한다. LG생활건강은 2005년부터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여성 가장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돕는 '행복미소기금'도 운영 중이다. 이 기금을 통해 매년 200여 명의 여성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사회 공헌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역량을 결합하고, 경영 전략과 연계된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LG생활건강의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이 이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

- 1 LG생활건강의 환경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2 구강·위생을 주제로 한 어린이 뮤지컬 <반짝반짝 페리오>의 공연 모습
- 3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는 LG생활건강의 지원으로 뷰티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게 된다.
- 4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뷰티, 환경 관련 일반 교육부터 영상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나눔과 꿈

프렌드아시아

“한민족 각인시킨 강제이주 고려인을 위한 집수리”

고려인 동포들은 강제이주라는 폭압 속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작한 ‘고려인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에서 버티며 살아낸 고려인들에게 고국이 해주는 보상과도 같았다.





한국에서 파견된 건축 전문가가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체제 붕괴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농민 고려인

“과거 구소련 체제에서는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했는데,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는 지원이 줄어들어 주택 정비는 물론 식료품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프렌드아시아 하명주 과장이 전해주는 고려인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일컫는 말이다. 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대부분 농업 이민이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이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이후 80여 년 동안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카자흐스탄 우쉬토베에서 토굴을 파서 생활하고 농사지으며 황무지를 농토로 가꿨다. 사랑의열매 나눔과꿈 지원으로 시작한 ‘고려인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첫 삽을 떠 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 10월까지 70여 가구의 집 수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폴리테크니카 칼리지 학생들에게 건축 기술을 가르쳐 현지의 건축 역량도 강화할 수 있었다. 한국의 건축 전문가와 카자흐스탄 현지 학생들이 힘 모아 고려인과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프렌드아시아는 아시아 개도국에서 지역개발 사업과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 단체로 유엔 사회경제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NGO다.

다 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대숙청 당시 연해 지역 한인들이 소수민족의 분리·차별 정책에 휘말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했다.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가다가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 내팽개쳐졌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인 17만여 명 중 1만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와 11개 독립국가로 분리되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돼 고려인이 직장에서 추방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주거 개선 사업이 진행된 우쉬토베는 고려인의 첫 번째 정착지로,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티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이다. 최초의 강제이주 정착지라는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자 생계를 위협받고



도움이 필요한 고려인의 집수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현지 지역 정부와 고려인협회



화재로 지붕이 불에 탄 고려인의 집(왼쪽)과 주거 개선 사업으로 말끔하게 수리한 모습(오른쪽)

있는 고려인 1·2세대들이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는 곳이다. 카자흐스탄의 작은 한국인 썸이다. 카자흐스탄 인구의 0.6%를 차지하는 고려인은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이 적은 카자흐스탄에서도 극소수의 소수민족으로 분류되어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중앙아시아의 겨울은 반년 넘게 이어져 허술한 주택에서 사는 고려인에게서는 그야말로 혹독한 시기다. 주거 개선 사업은 혹한으로부터 고려인과 카자흐스탄 현지 어려운 주민을 보호하고, 모국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고려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 정비 하나로 달라진 공동체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로 의식주를 꼽는다. 입고 먹고 자는 곳이 있어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프렌드아시아는 주거 개선 사업을 벌이며 주택 정비 하나로 공동체가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불랏 아블디노바(40)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두 팔과 다리가 절단

된 1급 장애인이다. 사고 이후 산업재해 보상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아블디노바는 이 소동 이후 정부와 주변 이웃들에게 외면받아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상황이었다. 우쉬토베 시청의 추천으로 주거 개선 사업을 위해 방문했을 때도 봉사자들에 대한 적대심이 강했다. 그러던 그가 지속적인 교류와 더불어 주택 외벽 공사, 창문과 지붕 교체 등 집수리가 진행되자 경계를 풀고, 한국 건축 전문가와 현지 대학생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등 상당히 변한 모습을 보였다. 더 큰 변화는 이웃들에게서 나타났다. 공사 완료 후 아블디노바와 관계를 회복한 이웃들이 현관문 설치 작업을 도운 것이다. 집수리를 통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다. 이번 혜택을 받은 고려인 빅토리아 김 할머니는 “한국의 도움으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면서 “아버지가 한평생 그리워하던 고국, 한국을 느낄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주택을



현지 사회적 기업 구성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도배 기술을 배워 실습하는 모습

매개로 한 정서 교류는 동포애를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파견된 국내 지원단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려인과 직접 교류하며 강제이주 역사를 알았고, 사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사업 취지에 공감해 정기 후원을 신청하는 봉사자가 점차 늘어갔다.

현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활동에 지역 정부와 주민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과 삼성, 사랑의열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업 종료 이후 탈디코르간 시청과 카자흐스탄 국민의회(The Assembly of the People of Kazakhstan)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개인의 안락한 생활을 넘어 한민족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긴 세월 동안 억압받은 고려인들의 삶에 위안이 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



추위를 막을 수 있게 새시와 단열에 공을 많이 들였다.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의 건축 기술을 전수하고 실습할 기회도 제공해주었다.

INTERVIEW

“고려인은 한국인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프렌드아시아 하명주 과장



고려인의 애환은 무엇인가?

강제이주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강제이주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2·3세대도 연

로한 상황이다.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현지에 동화되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평생을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다. 2·3세대는 부모에게 들은 한국을 기억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꿈을 꾀다.

우리와 어떤 동질감을 지니고 있는가? 한국말이 통한다는 것이 첫째다. 말투는 다르지만 현장에 가면 고려인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해외 교포 2·3세만 되어도 한국말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일반 이민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현장을 떠날 때 고려인 3세 할머니께서 선물로 수저를 비닐에 싸서 주셨는데, 그게 ‘끓고 다니지 말라’는 뜻이라는 설명을 듣고 우리와 무척 닮았다는 사실을 느꼈다.

주거 개선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이 달랐나? 현지의 자재를 사용했기에 한국 기술자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다. 새시를 마감할 때도 한국에서는 실리콘을 사용하지만, 이곳에서는 실리콘이 비싸서 석고로 한다. 온습도에 따라 재료가 굳는 시간이나 상태가 달라서 현지에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한국 방식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현지에 맞게 활용한 것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업을 종료하며 어려운 점을 돌아본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성이 숙제였다. 다행히 현지에 진출한 우림건설과 사회적 기업이 연계되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눔과꿈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다.

빈 통장의 기적

- 류제황 대전도시공사 참사랑회 前 회장



대전도시공사 환경 관리 사원으로 구성된 참사랑회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맡아 봉사 활동을 해온 지 어언 20여 년이 넘었다. 정년을 앞두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여전히 고문을 맡아 동료와 후배들이 단체를 잘 이끌어가도록 돕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사랑의열매 재능봉사단 단장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두고 말한다. 남도와주는 일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고, 이제 몸 생각도 하면서 하라고, 나이가 있으니 봉사를 줄일 때가 됐다고, 왜 그렇게 남을 돕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느냐고 말이다.

빈 통장이 하는 일

내가 재직 중인 대전도시공사는 환경 미화 회사다. 청소가 주 업무다. 청소를 하다 보면 지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주민이 우리를 챙겨 주기도 한다. 서로 오가는 마음을 그냥 흘려버리기 싫어 뜻이 맞는 몇몇 동료와 1997년도경 봉사단을 창단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비 걷어 어려운 이웃 돕기를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뜻깊게 돕고 싶어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그때부터 참사랑회 봉사단은 참 많은 일을 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지원했다. 봉사 일손이 부족하다거나 급하게 짐수리를 해줄 가정이 있다는 등 사랑의열매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면 어디라도 갔다. 도배와 장판을 해주는 건 기본이고 육가공 회사에서 육류의 등뼈나 잡고기 등을 기부받아 무료 급식소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제공하기도 했다. 각종 물품도 기부받아 다양한 기관과 가정에 배분했다. 그렇게 1년을 살고 연말이 되면 참사랑회 통장은 시쳇말로 텅텅 빈 '텅장'이 되곤 했다. 매해 그렇게 통장이 텅 빈 채 연초를 맞았다. 그래도 그 텅 빈 통장으로 우리는 1년간 많은 일을 해내왔다. 그래서 나와 회원들은 빈 통장의 기적이라고 말하곤 한다.

남 돕는 거라고 생각하면 못 해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나이가 있으니 일 좀 줄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남을 돕는 일은 왜 하는 거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나의 대답은 하나였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다. 나 살기도 힘들다는 말을 쉽게 하는 세상이 아닌가.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겠나. 하지만 남이 아닌 내가 아는 이웃사촌이 힘들어한다면 그걸 모른 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네 인심이 아직은 그렇다. 뭐라도 거들어주고 싶어 다들 나설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나 봉사란 그런 것이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나와는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다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다. 내가 어려울 때 이웃들이 힘내라고 조금씩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용기를 얻을 것이다. 봉사과 나눔이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골목길을 치우더라도 내 집 앞만이 아니라 이웃집 앞까지 쓸어주면 된다.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남들이 말하는 봉사가 되고 나눔이 된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보면 안다. 자, 둘러보고 내가 아는 내 이웃을 좀 거들어주자. 그렇게 시작해보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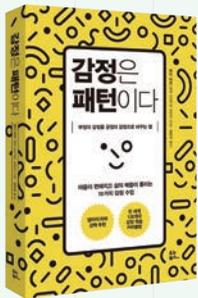
류제환 참사랑회 전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은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전달뿐 아니라, 각종 물품을 기부받아 배분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해왔다.





부정적 감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기초 마음 훈련

(ft. 살짝 멍청한 뇌)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샤워한 후 불을 끄고 이불을 턱밑까지 끌어 올린 후 눈을 감으면 슬그머니 침대로 올라와 내 옆에 눕는 것이 있다. 공포 영화 같다고? 맞다! 이것에 지는 사람에겐 극강의 현실 공포일 수 있다. 두려움, 우울함, 불안, 분노... 바로 부정적 감정

이다. 원래 욕이던 손가락 V를 Victory의 V로 바꿔버릴 만큼 위트 있고 당당하던 영국 전 수상 윈스턴 처칠이 평생 친구라고 부른 개가 있다. '블랙독(Black Dog), 즉 산책길 주인을 쫓아다니는 검은 개에 우울증을 비유해 부른 단어다. 죽기 전 마지막 남긴 말도 "참 지루했다"는 그에게 우울증은 생에서 굴복한 유일한 것이었다. <감정은 패튼이다>(랜디 타란 지음, 강이수 옮김, 유노박스)는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죄책감, 욕망, 자신감, 행복, 관용, 사랑까지 10개의 감정을 통해 비로소 행복

에 이르는 지도를 그려놓았다.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처럼 부정적 감정에 지배당하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도움받을 이야기가 많다.

두려움을 꼬집어내 직면하자, 주머니 속 휴대폰처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차리면 두려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가 쉽다. 부정적 감정이 고개를 들 때 다음 중 어떤 유형인지 따져보자. ● 상실의 두려움(사랑하는 사람, 일자리, 직업, 기회 등) ● 변화에 대한 두려움(실패, 이직, 인간관계, 성공 등) ● 거절에 대한 두려움(자기 부족감, 사회적 가면, 칭찬 등) ● 상처에 대한 두려움(사람, 인간관계 등) ●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중 겹칠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쳤을 수도 있다. 마치 사다리 타기를 하듯 감정의 연원을 찾아 들어가 결론에 도달하는, 약간은 잔인한 작업일 수 있다.

두려움의 근원과 배경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꺼내고 마주

해본다. 두려움을 책망하고 억누르기보다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본능을 존중하며 해결책이 떠오르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이제 어떡하지?”라고 물어본 다음, 차분히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자비(self-compassion) 학습법이다. 자기 친절(self-kindness)이라고도 하는데,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안심시키고 위로한다. 마치 소중한 친구에게 하트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보라. “○○야, 지금은 정말 힘든 상황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야. 항상 그랬잖아.”

걱정과 불안의 차이

불안은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정의한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 중 18.1%가 불안 장애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불안은 종종 걱정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다. 걱정이 대체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불안은 모호하고 막연한 관심사에서 온다. 예를 들어 분기 프로젝트를 망쳐 해고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은 걱정이지만, 직장 상사가 갑자기 업무 매뉴얼을 물어오는 것에 대답하지 못해 해고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은 불안이다.

면접이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며 대비하는 건강한 불안도 있지만, 불안이 깊어지면 장애로 나타난다. 불안 장애는 대체로 어린 시절의 학대나 상처·방치·생활고 등 부정적 경험에서 기원하며, 때로 극심한 트라우마에서 비롯하기도 한다. 불길한 생각이 진정되지 않거나, 인간관계와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커졌다면 스스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배는 주변의 물이 아니라

배 안으로 스며드는 물 때문에 가라앉는다

스며든 물 때문에 가라앉는 배처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적 감정이 차오르면 인생이라는 배는 가라앉을 수도 있다. 선장이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배를 안전하게 이끌듯 우리도

감정의 일정한 습관을 길러 파도를 헤쳐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규칙적 훈련을 통해 뇌 회로를 강화하는 능력, 즉 신경가소성이 있다. 마치 첼로를 배우듯 계속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이치다. 감사함, 편안함, 자신감을 북돋우는 경험을 거듭하면 실제로 이전보다 편안하고 자신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뇌는 생각을 반복하면 더 많은 뉴런이 활성화되고 신경 경로가 더 빨리 발달하며, 이로 인해 뇌의 영구적 변화가 생긴다는 것. 그렇다면!

긍정적 사실을 발견하고 긍정적 경험으로 발전시켜라

해야 할 일을 무심코 해치우지 말고 그 상황과 순간에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떠올린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거나 작은 목표를 성취했을 때 잠시 멈춰서 맘껏 자부심을 만끽하라.

긍정적 경험을 음미하라

10~30초 동안 긍정적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라. 몸과 마음으로 그 감정을 음미하고 강화하라.

긍정적 경험을 뇌에서 흡수하고 있다고 의식하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뇌가 긍정적 경험을 흡수하는 상상을 해보라. 그리고 감정과 기억에도 흡수되고 있다고 의식하라. 그런 다음 뇌와 신체의 세포에 긍정적 감정 경험이 깊이 자리 잡았다고 상상하라.

이 훈련을 반복하면 뇌를 점차 재구성할 수 있다. 긍정적 경험이 일시적 상태에서 영구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작지만 뚜렷한 긍정적 경험을 많이 확보할수록, 또 훈련을 자주 할수록 당연히 효과가 좋다. 부정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 비로소 혼자 잠들 수 있는 마음의 기초 군사훈련이라고 생각해보자. ♣



꿈꾸는 백설기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유쾌한 칼럼니스트.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힘이 되는 글을 쓰고 싶어 한다. 일간지와 관공서 등에서 일했다.

연말연시를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함께 공연 보러 가지 않을래요?

연말이 되면 문화 회식 중인 직장인부터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까지 많은 사람이 공연장을 찾는다.
좋은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때이기 때문일 터. 압도적인 대작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까지 풍성한 공연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평소 공연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공연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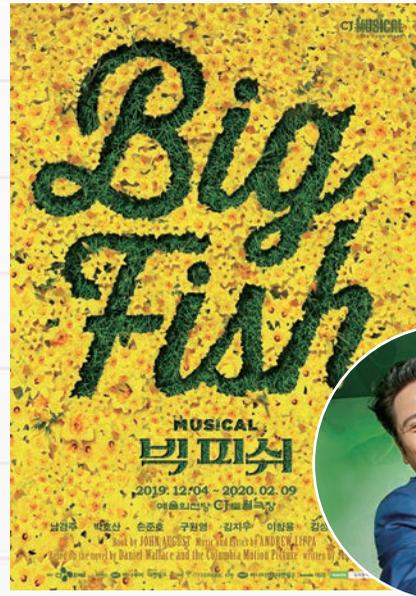


연극 PICK

배우 강하늘의 연극 무대 복귀작 <환상동화>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순진무구한 순정남 황용식 역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강하늘이 연극 <환상동화>의 사랑광대로 5년 만에 무대에 복귀한다. <환상동화>는 각각 사랑광대, 전쟁광대, 예술광대인 세 광대가 한스와 마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전개된다. 극 중 강하늘은 순수하고 감성적인 사랑광대 역을 맡아 섬세한 연기와 높은 캐릭터 싱크로율을 보이며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환상동화>는 극중극 형태로 무용·마임·음악·연기 등이 어우러진 예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배우 강하늘표 사랑광대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환상동화>를 맡은 김동연 연출가는 앞서 뮤지컬 <신홍무관학교>에서 강하늘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다시 의기투합한 두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자못 궁금하다.

• 2019년 12월 21일~2020년 3월 1일 •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코트홀



뮤지컬 PICK

무대에 펼쳐지는 황홀하고 행복한 판타지 <빅 피쉬>

대니얼 윌러스의 소설과 국내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은 팀 버턴 감독의 판타지 영화 <빅 피쉬>가 동명의 뮤지컬로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2013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후 한국 관객의 정서와 문화에 맞춰 완전 새로운 버전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힘은 위대하다는 메시지를 담아 가족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을 듯하다.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한 연출가 스콧 슈왈츠의 최초 한국 진출작으로, 극적이고 황홀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낭만적인 허풍쟁이 아버지 에드워드 역은 자타 공인 최고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박호산, 섬세한 감정 연기와 폭발적 가창력을 겸비한 손준호가 맡아 3인 3색의 에드워드를 그려낸다.

• 2019년 12월 4일~2020년 2월 9일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클래식 PICK

빈에서 펼치는 감동이 그대로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2020 신년 음악회’



클래식계의 연례행사로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실황 중계할 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의 진수를 직접 만끽할 수 있는 내한 공연이 열린다. 핵심 현역 단원 13명으로 구성된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은 2020년 1월 1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라인에서 열리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0 신년 음악회를 마치고 곧바로 한국을 찾는다. 현지 공연 직후 내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중심으로 구성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0 신년 음악회 프로그램을 그대로 선보일 예정으로, 세계적 명성의 무대가 서울에서 재현된다.

• 2020년 1월 3일 세종문화회관 • 2020년 1월 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발레 PICK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놓칠 수 없는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전 세계 발레단은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무대에 올릴 준비를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립발레단이 예술의전당과 함께 <호두까기인형>을 선보인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관객을 주인공 마리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고, 마리가 꿈속에서 크리스마스랜드로 떠나는 여정을 함께하도록 이끈다. 동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화려한 발레 테크닉과 동화 속 나라를 연상케 하는 무대와 의상,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특별한 음악 선물이 있는 연말에 놓칠 수 없는 스테디셀링 공연이다. 국립발레단이 선택한 유리 그리고로비치 안무의 <호두까기인형>은 주인공 마리를 크리스마스랜드로 안내하는 마리의 대부 드로셀마이어와 왕자로 변신하는 호두까기인형의 재해석과 연출에서 다른



유명 발레단 버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발레 작품으로 특별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발레극 <호두까기인형>이 제격이다.

• 2019년 12월 14~25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사랑의열매에 나눔 전하는 특별한 음악회

한 해 동안 고마운 이들을 초청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음악회를 여는 기업이 많다.
그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소개한다.

(주)유니메딕스 한마음 기부 콘서트

의료 기기 제조업체 (주)유니메딕스는 지난 2017년 자선 콘서트를 열어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올해도 12월 20일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기부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에는 임직원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는 한편, 전달식을 마련해 사랑의열매에 성금을 기부한다. 이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년 소녀 가장, 탈북 주민, 다문화 가정, 환우 등을 위해 쓸 예정이다. 기부 콘서트 개최에 앞서 (주)유니메딕스 양주석 대표는 “올 한 해 동안 받은 많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연말 기부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며 기부 콘서트 개최 이유와 다짐을 밝혔다.



루비셀의 사랑나누기 신년 음악회

줄기세포 피부 과학을 선도하는 전문 기업 (주)아프로존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새해 희망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 2015년부터 매년 ‘루비셀의 사랑나누기 신년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신년 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또 2016년에는 (주)아프로존 김봉준 회장이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섯 번째 ‘루비셀의 사랑나누기 신년 음악회’가 2020년 1월 18일 부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열린다. 지휘자 김영준, 뮤지컬 배우 카이, 소프라노 한정미가 무대에 오르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중앙회

**신한금융그룹, 120억 원 기탁으로
'희망2020나눔캠페인' 1호로 기부**

11월 20일 오전, 신한금융그룹 조오병 회장이 사랑의열매를 방문해 이웃사랑 기금 12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20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가 되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00억 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한희망재단과 함께 20억 원을 추가해 120억 원을 기부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사랑의열매에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877억 원을 기탁했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사랑의열매와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 협약 체결**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박차훈, 이하 MG새마을금고 재단)이 11월 12일 사랑의열매와 아동 및 여성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MG새마을금고 재단은 아동 200명의 양육비와 여성 청소년 265명의 생활필수품 지원 등 1억 7,000만 원 지원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MG새마을금고 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중앙회 나눔명문기업 1호가 되었다.



'사랑의 금융 119'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 체결

사랑의열매와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과 재무 컨설팅 등으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사랑의열매는 11월 19일 오후 사회연대은행,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연화, 희망만드는사람들,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한국금융복지상담사협회와 함께 전국 중위 소득 80% 이하의 이웃에게 긴급 생계비 대출과 재무 컨설팅을 진행하는 '사랑의 금융 119'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인천국제공항 SPC 전 매장에 사랑의열매 모금함 설치

SPC행복한재단(이사장 허영인)은 11월 21일 사랑의열매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해피 체인지(Happy Change)'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SPC그룹이 운영하는 매장 계산대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조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 미혼모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한다. 한편 SPC행복한재단은 2012년부터 서울, 경기, 충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2억 5,691만 4,550원에 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홍보대사 현영에게 '사랑의열매' 배지 전달받고 성금 기탁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20일 서울 사랑의열매 운영석 회장과 현영 홍보대사가 함께한 가운데 '사랑의열매' 배지를 전달받고 이웃 사랑 성금을 기부했다. 나눔명사에게 사랑의열매를 전달하는 이 행사는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먼저 참여하고 나눔을 독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내년 2월 19일 까지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광진복지재단 개소와 함께 '나눔 네트워크' 협약 체결

11월 18일 광진복지재단이 개소했다.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재단은 복지 관련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지역 복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민관과 협력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20일 광진구와 광진복지재단, 서울 사랑의열매가 '광진구 나눔 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에콜리안 광산골프장, 화재피해자 돕기 성금 500만 원 전달

지난 10월 23일 에콜리안 광산골프장 측이 광산구 화재 피해자 돕기 성금 5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추석 연휴 첫날 화재로 사고를 당한 광주 광산구 화재 피해 가족을 돕는데 사용했다. 에콜리안 광산골프장 구광현 지사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나누는 에콜리안 광산골프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19년 기획 사회복지현장 이동권 보장 지원사업 수행안내교



광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현장 이동권 보장 지원사업비 2억9,800만여 원 지원

광주 사랑의열매는 11월 27일 사회복지 현장 이동권 보장 지원사업비를 사회복지 기관 12개소에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렌트 지원 사업으로 총 2억 9,800만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광주지역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의 귀가 지도, 체험 활동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활동 보조 등 이동 서비스에 활용한다. 차량을 구입해 지원한 기존과 달리 3년간 렌트비를 지원한다.

삼두종합기술(주), 울산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가입

울산 사랑의열매는 11월 6일 삼두종합기술(주)(대표이사 최영수)에 나눔명문기업 인증패를 전달했다. 삼두종합기술(주)은 3년 동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울산 2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했다. 삼두종합기술(주) 최영수 대표이사는 “울산 2호 나눔명문기업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해 울산이 더욱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희망2020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울산 사랑의열매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11월 20일 울산시청 광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 노옥희 교육감, 아너 소사이 여티 회원,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0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랑의온도탑은 울산시청 광장과 울산역에 각각 설치한다. 이 탑은 나눔 목표액 70억 4,300만 원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씩 올라간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15년째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의 지원을 받아 창원공장에서 경남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한국지엠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로 마련한 김장 김치 5,130kg은 경남 사회복지협의회와 경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경남 도내 33개 사회복지시설과 창원시 성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60세대에 전달했다. 한국지엠과 함께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는 2005년 시작해 올해로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장수용 한국사회복지관경남협회장, 나눔리더 가입

장수용 한국사회복지관경남협회장이 ‘희망2020나눔캠페인’의 경남지역 첫 나눔리더로 가입했다. 장수용 협회장은 평소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이번 가입은 나눔리더를 알게 된 후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숭선수범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이루어졌다. 장수용 협회장은 “나눔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대구

연말연시 이웃사랑 성금 모금 캠페인 시작

대구 사랑의열매는 11월 20일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랑의온도탑은 舊 중앙치안센터 앞에 세워진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사랑의온도 100℃ 달성을 위해 대구의 대표 기업들(한국감정원, DGB사회공헌재단, 삼익THK(주), (주)서보, 이랜드리테일 동아백화점, 이월드)이 캠페인 1호 기부에 동참해 18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 이번 캠페인의 나눔 목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억 2천만 원이다.



어려운 이웃 9,000여 세대에 난방비·난방용품 지원

대구 사랑의열매는 대구 시민이 모은 성금으로 대구지역 어려운 이웃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대구 내 중위 소득 80% 이내의 저소득 주민 중 한파에 취약한 9,000여 세대를 발굴해 난방비와 난방용품으로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대구 사랑의열매 김수학 회장은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뜻깊은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제주

제주 사랑의열매,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

제주 사랑의열매는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탐라홀에서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 아래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의 나눔 목표액은 47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 캠페인 모금액 47억 7,500만 원보다 약 1.5% 증가했다. 캠페인의 상징물인 사랑의온도탑은 노형오거리(노형타워 앞)와 도청 로비에 설치됐다. 나눔 목표액의 1%인 4,782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씩 올라간다.



(주)제주속으로, 제주 나눔명문기업 1호 가입

(주)제주속으로(대표 강동협)는 제주 사랑의열매에서 1억 원 기부 약정을 하고 기업 고객 기부자 모임인 나눔명문기업 1호 인증패를 받았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법인 기업을 위한 기부 프로그램이다. 강동협 대표는 "제주 1호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하게 되어 뜻깊고, 제주 나눔문화 확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수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위군 첫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탄생

10월 29일 군위군 첫 번째 아너 박태조님의 가입식이 있었다. 박태조 회원은 1920년 군위군 소보면에서 출생하였으며 5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번 가입식은 생전에 어려운 형편에도 늘 검소하며 남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친 박태조 아너의 뜻과 못다 이룬 나눔 실천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둘째 아들인 미광전업 박무근 대표가 기부하면서 이루어졌다. 박무근 대표는 “아버님의 꿈을 고향 군위에서 펼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전국 리사이클센터, 신형 세탁기 1,100대 기탁

전국 리사이클센터 측이 경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시설, 태풍 피해 가정에 신형 세탁기 1,100대를 전달했다. 전국 리사이클센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제품을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한 후 여러 작업을 거쳐 재활용 원료로 재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이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11개 기관에 43억 원 상당의 세탁기 5,100여 대를 기탁하는 등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주)삼화건설사 윤장환 대표이사, 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전북 59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과 동시에 전북지역 두 번째 부자 아너가 탄생했다. (주)삼화건설사 윤장환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으로, 먼저 가입한 아버지 윤방섭(전북 15호) 아너와 함께 전북지역 두 번째 부자 아너가 되었다. 윤장환 대표이사는 “먼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나눔으로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 태홍축산, 착한가게 2,200호 가입

김제시에 위치한 태홍축산(대표 양종석)이 전북지역 착한가게 캠페인에 2,200번째로 동참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조기문 용지면장, 용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준식 위원장, 사랑의열매 정몽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김제시 사랑의열매 봉사단원들이 참석했다. 양종석 대표는 “나누기 위해 내린 작은 결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배준식 위원장님 말에 공감해 동참하게 되었다”며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인천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밤’ 행사 개최

10월 3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밤’ 행사에 인천 아너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회원인 인천 135호(이명) 아너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인천 최초 초고액 아너(5억 원) 1호 가입식 등을 진행했다. 이 외에 문화 공연과 경제 관련 강연도 있었다. 아너 회원들은 앞으로도 회원의 밤 행사와 봉사 활동을 통해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별 회원 모임 활성화와 신규 회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나눔명문기업 1호 가입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나눔명문기업은 3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약정하는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날 가입식에는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과 인천 사랑의열매 정명환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봉현 사장은 “항구도시 인천에서 인천항만공사가 나눔의 뜻을 올리게 돼 기쁘다”며 “나눔명문기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

‘희망2020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첫 기부금 전달

강원 사랑의열매는 11월 20일 ‘희망 2020 나눔 캠페인’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맞아 강원랜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캠페인 첫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강원랜드 3억 5,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5,000만 원으로, 강원랜드는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의 첫 기부자로 기부금을 전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 혁신 도시로 이전한 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현대자동차(주) 강원지역본부, 희망2020나눔캠페인 기부금 전달

현대자동차(주) 강원지역본부는 11월 21일 강원 사랑의열매에 ‘희망 2020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현대자동차(주) 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으로 강원 도내 홀몸 어르신 200명에게 월동용품(이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산 현대자동차 강원지역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한샘, '함께 라이프' 사회공헌 협약식 및 5억 원 기탁

종합 인테리어 전문 기업 (주)한샘이 이영식 부회장, 임창훈 감사, 이승기 이사와 한샘 직원들, 경기 사랑의열매 이순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샘 '함께 라이프' 사회 공헌 협약식을 개최했다. (주)한샘은 이날 협약식으로 연간 성금 5억 원을 기부한다. 성금은 한부모 가정과 전국 어려운 이웃의 자립 지원 사업 등으로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영식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선을 다해 마음을 합쳐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1,000만 원 기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지사장 이진상)가 고양시 관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단열 에어캡(백색)을 전달했다. 전달된 단열 에어캡은 고양시 관내 280여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문 단열 에어캡 설치 지원에 사용한다. 전달식 이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 임직원 30여 명이 흰돌마을 내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단열 에어캡을 직접 설치하는 봉사 활동도 펼쳤다.

대전 사랑의열매, '2019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 개최

10월 31일 대전 사랑의열매는 KEB하나은행 대전 영업부지점 10층 강당에서 '2019 나눔 실천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했다. 포상식은 적극적인 나눔 실천과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 기업과 단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광역시 김재혁 정무부시장,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부의장, 대전광역시 설동호 교육감,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민인홍 총괄대표와 나눔 실천 유공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착한시민 캠페인' 협약식 진행

대전 사랑의열매는 11월 6일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착한시민 캠페인'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대전 사랑의열매가 공동 주관·추진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희망2020나눔캠페인' 속 대전지역 별도 캠페인이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된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한재득 회장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회원 단체 및 회원들께 안내하고 홍보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

충남 사랑의열매는 11월 20일 충남도서관 맞은편 광장에서 연말연시 이웃 돕기 범도민 모금을 위해 진행되는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나눔 목표액은 167억 7,000만 원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기부 기업체, 사회복지관 및 단체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시티문화재단, 아동 및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시티놀이터 1호’ 개소식**

충남 사랑의열매는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신영철)에서 시티문화재단(이사장 윤지연)과 시티건설(대표 정원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티놀이터 1호’ 개소식을 진행했다. 시티놀이터 1호는 지난 7월 시티문화재단에서 기탁한 성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지원받아 2개월 동안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놀이터 기능을 보강해 개소한 것이다.

유한킴벌리(주) 충주공장, 사랑의 연탄 지원 사업

유한킴벌리(주) 충주공장(공장장 조경희) 임직원 30여 명은 충북 사랑의열매와 연계해 충주시 저소득 보훈 대상 10가구에 사랑의 연탄 4,500장을 지원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이들은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많았다”며 “매해 잊지 않고 연탄을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조경희 공장장은 “유한킴벌리(주) 충주공장 임직원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복지를 증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소주, ‘희망2020나눔캠페인’ 홍보 협약

충북소주(대표 황요나)는 11월 19일 충북 사랑의열매와 ‘희망2020나눔캠페인’ 홍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황요나 충북소주 대표와 노영수 충북 사랑의열매 회장이 참석했다. 충북소주는 협약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생산하는 ‘시원한 청풍소주’ 1,000만 병에 희망2020나눔캠페인을 홍보하는 보조 상표를 부착한다. 황요나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하는 데 충북소주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사랑의열매,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

부산 사랑의열매는 11월 20일 송상현광장에서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희망2020나눔캠페인은 11월 20일부터 73일간 '나눔으로 행복한 부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127억 원을 목표로 이웃 돕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출범식에는 부산시장, 부산시 의장, 교육감, 언론사 대표, 기부자 대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등 많은 부산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다수 나눔'에 부산지역 복지 기관장이 단체로 가입했다.



DSR(주), 사랑의온도탐 첫 기부 1억 원 쾌척

DSR(주)(대표이사 홍석빈)이 올해에도 1억 원을 쾌척해 사랑의온도탐에 첫 불씨를 지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산 사랑의열매 신장택 회장, DSR(주) 이동훈 상무가 참여했다. 이번 기탁으로 사랑의온도가 0.8℃ 올라갔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DSR(주)은 2014년부터 희망나눔캠페인 시작과 동시에 매년 1억 원씩 기부해 사랑의 온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은 6억 원이다.

목포 한사랑병원 조생구 원장,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목포시 한사랑병원 조생구 원장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전남 91호(목포 17호)로 가입했다. 조생구 원장은 1억 원을 완납하며 전남도청 광장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탐 제막식에서 가입식을 진행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복지시설 지원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 조생구 원장은 "예전부터 아너 가입을 고민하던 중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가입했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 '희망2020나눔캠페인'에 3억 원 전달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욱)는 11월 20일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탐 제막식에서 3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남 도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전남 지역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세종

‘착한병원’ 최훈내과, 1,000만 원 성금 기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위치한 최훈내과(원장 최훈)는 11월 14일 원장실에서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세종시 아름동, 고운동, 종촌동, 도담동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한다. 최훈내과는 매월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병원’ 114회에 가입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훈 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말했다.



세종 어린이집 원생, 저금통 현장 모금 행사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인숙)는 11월 6일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참여하는 ‘2019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하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저금통 현장 모금 행사’에서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금한 성금은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200여 곳의 원생이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기탁한 것이다. 2015년부터 매년 이어온 저금통 모금은 이번 행사로 누적 금액 총 1억 594만 6,151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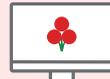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회 268호



크리스틴 강 Edgemine, Inc COO
나눔이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세종 14호



박상혁 세종첨단산업단지(주) 대표이사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기업을 유치했고, 이제는 세종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톡큰 기부에 동참합니다. 세종시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따뜻한 나눔이 확산되는 질적 성장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 15호



김은기 (합)농업법인 매바위 대표
망설이느라 기부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앞장서서 나눔을 알리고 전파해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16호



정해석 산장가든 대표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버는 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광주99호

조덕선 (주)사랑방미디어 대표이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108호

故 박태조
생전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늘 검소하게 생활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아버님의 꿈을 고향 군위에서 펼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박무근 미광전업 대표-故 박태조 회원 아들)



전남 2호
패밀리 아너

허영호 (주)미림산업개발 대표(父 전남 12호), **고귀란** (母 전남 27호)
허고은 (딸 전남 77호), **허민석** (아들 전남 90호)
이번에 아들이 가입하면서 오랜 염원 끝에 가족 모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림산업개발 허영호 대표)



서울 273호

안용호 스카이뷰 대표이사
배려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에게,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274호

전종하 (주)퍼플랩스 헬스케어 대표이사



서울 275호

김진원 (주)비즈솔루션랩 대표이사



서울 276호

한경희 서울용산국제학교 보건교사

- 🌸 **중앙** 김원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수형
- 🌸 **부산** 이태영 (주)에스에이치씨 대표
- 🌸 **충남** 이지윤

- 🌸 **대전** 김병한 대림한의원 원장 윤종실 계룡장학재단 이사 (故 이인구 명예회장 부인) 박한석 굿모닝어학원 원장

- 🌸 **전북** 윤장환 삼화건설사 사장 이병관 대자인병원 원장
- 🌸 **인천** 박봉주 인천제일기계(주) 대표 변종석 (주)세이프티컨설팅 이사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 '소방관이 만드는 하루 119원의 기적'을 읽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과 재난 구조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만난 이재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고 차마 외면할 수 없어 하루 119원씩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 취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역 의용소방대에 가입한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지역사회에 큰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관을 돕는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국의 의용소방대원 총 인원은 거의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큰 조직인 의용소방대가 '하루 119원의 기적'이라는 모금 운동에 동참한다면 재난 재해를 겪은 이재민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소속된 의용소방대의 대장님께 건의해 많은 의용소방대원이 모금 운동에 동참하기를 권유해야겠어요.

-한봉윤_경기도 남양주시

▶ '사랑의열매와 함께 모두 존중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도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의열매는 차별 없이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어 다문화 가족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힘든데, '다문화엄마학교'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초등 학교 교과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소통·공감·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박주희_부산시 진구

▶ 이동식 목욕 차량 17대를 기부하면서, 한 대 한 대 늘어날 때마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하는 '효녀 가수' 현숙 씨의 인터뷰가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효녀 가수로, 무대에서 만나는 아버지·어머니 같은 관객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힘내서 노래한다는 현숙 씨는 날개 없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하면서 아너 소사이터티 가입과, 홍보대사, 그리고 이동 목욕 차량 기부로 이어졌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가수이자 기부 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현숙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응원하고 기뻐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언제까지나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현숙 씨의 영원한 팬이 될게요!

-오은경_부산시 북구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김응수
×
사랑의열매

올 겨울,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나눔온도를 높여주세요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홈페이지 www.chest.or.kr



사랑가득 2019 희망가득 2020

